

기고

### 보행자 보호, 보이지 않아도 멈춰야 합니다

주미정 보성경찰서 경무과 경장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보행자 보호에 관한 부분들이 7월 12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그로 인해 요즘 운전할 때마다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우회전해도 되나?"라는 궁금증이 생겼지만 정작 찾아보지 않고 앞차를 따라 운전하기 바빴다. 답은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가능하며,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후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 관계 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보행자가 횡단하기 위해 손을 들거나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피는 등 횡단의사를 표시한때,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대기중,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 또는 뛰어들 때 등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가 일시정지의무를 지키며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도록 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교통사고 중 보행자 교통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2916명 중 보행 사망자는 1018명으로 약 35%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 또한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시 일시정지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보행자 중심 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 또한 차에서 내린 순간,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법규를 준수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야교을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윤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떠날 때는 뒤 돌아보고 또 돌아보자

정기연 전영남 신북초등학교 교장

민선 8기 지자체 단체장이 7월 1일부터 부임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공직 사회에서는 떠나야 할 사람과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 생겼다. 떠나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떠날 때는 뒤 돌아보고 또 돌아보자.' 라는 말을 명심하고 후회 없이 떠나야 한다.

인생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말하는데 사는 장소적 인생, 사는 시간적 인생, 무엇을 하는가의 업무적 인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며 고향에 머물기도 하지만, 타지방으로 타국으로 옮겨 다니며 산다. 시간적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직선 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생의 위치가 되겠으며, 업무적 인생이란 장소적 시간적 인생이 어느 곳에서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하며 사는 가의 삶이다.

인생의 삶은 연속되는 장소 시간 업무와의 만남과 떠남 속에서 산다. 새들은 앉았다 떠날 때는 앉았던 곳의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정리를 잘한 후 떠나며 떠난 후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한다. 머물고 있던 곳에 피해를 주지 않고 남기고 빠진 것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챙기는 것이 있다. 열쇠, 돈과 증명이 든 지갑, 휴대전화기는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챙길 것을 빠뜨렸을 때는 되돌아와 챙기고 가야 한다. 우리가 기차나 자동차 비행기를 탔을 때 종착지에 가면 안내 방송으로 앉은 자리에 빠진 것이 없나 잘 살펴보고 떠나란 방송을 한다. 무엇인가 빠뜨려 놓고 떠난 후 후회해도 소용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인생이 후회 없이 살려면 시간상으로는 과거를, 장소적으로는 현재 머무는 곳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돌아보고 떠나야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 차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뒤 돌아보고 빠진 것이 없어야 하며 직장을 옮길 때는 인적 물적 주변 정리를 잘하고 나 때문에 생긴 쓰레기는 치우고 내 것은 챙겨 떠나야 한다. 한번 머물렀던 곳은 미련 없이 버려야 하며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인생 선배들의 충고다.

앞으로 나갈 때는 앞을 가가이도 보지만, 멀리 봐야 하는 것을 자동차 운전 학원에서 주행할 때 주의 사항으로 가르치고 있다. 멀리 보지 않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며 속도가 빠를수록 더 멀리 보고 운전해야 한다. 날

로 변하는 국제사회 변화의 물결을 타고 가는 우리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멀리 보며 살아야 한다.

현재는 가진 자이지만, 먼 훗날을 보면 못 가진 자가 될 수도 있고, 현재는 어렵고 안 되는 일도 멀리 보면 성공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일을 시작할 때는 멀리 끝을 보며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꾸준히 성실히 실천하며 가야 한다. 인생을 멀리 보면 끝점은 너나 나나 죽음이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인생을 멀리 보려면 나보다 연상인 자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나이의 나를 예측해 보면서 오늘의 시점에서 준비하고 앞을 멀리 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인생 나그네는 머물렀던 곳에서 떠날 때는 다음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치우고 빠진 것이 있나 챙기는데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하며, 앞을 멀리 보고 뒤돌아보지 말며 힘차게 전진하자.

인생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으나 가진 자가 되려는 부단한 욕구는 성공으로 욕구를 충족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지만, 그 소유가 종말에는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다 간다.

남기고 간 것이 유산이며 그 유산은 물적 재산과 지식기능 정보의 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의 유산이 멀리 보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며 대책을 세워 정리해야 한다. 물적 유산인 돈과 재산이 내 인생의 종말에 누구의 소유가 되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를 생각해 미리 유서로서 상속자를 정해야 한다.

무형의 재산인 지식정보기능은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의 종말과 동시에 소멸하므로 죽기 전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 전해주어야 한다. 인생을 멀리 보면 끝점은 너나 죽음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보람 있는 삶이란 내가 가진 자가 되는 즐거움에서 살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면서 보람 느끼며 살고, 인생의 삶을 마친 후 내세의 준비까지도 하면서 종교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며 어울려 사는 것이다.

인생 나그네는 머물렀던 곳에서 떠날 때는 다음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치우고 빠진 것이 있나 챙기는 데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하며, 앞을 멀리 보고 뒤돌아보지 말며 힘차게 전진하자.

기고

### 친환경 전기자동차, 안전하게 타자

전지연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의 과충전, 교통사고 등 강력한 외부 충격 등이다. 전기차의 경우 2021년 23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등록대수(23만대) 대비 약 0.01% 비율로 오히려 내연기관 차량보다 낮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보다 피해가 심각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배터리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 화재 진화가 쉽지 않다. 게다가 기존 차량 대비 100배에 달하는 열이 필요하다. 또 진화 과정에서 배터리 폭발 및 고압 전류 노출 등의 2차 위험도 있다. 더 까다로운 안전 규정이 요구되는 이유다.

근래의 고부가가치세와 더불어 갈수록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들의 판매가 늘고 있다. 기업들은 차량 판매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배터리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신고를 해주고 대피경보를 해주는 기능이 탑재된다던가 하는 방법 말이다.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기능은 법규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달 19일 광주 상무지구에서 도심을 달리던 소형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었다. 미국에서도 지난달 24일 페차장에서 있던 테슬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쉽게 잡히지 않자 소방관들은 커다란 물구덩이를 만들어 차량을 빠뜨리는 방식으로 겨우 진화했다.

지금까지의 화재 대부분은 전기차에 장착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했다. 위의 화재들도 다르지 않다. 전기차 하부에는 손가락만 한 원통형 혹은 파우치형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겹겹이 쌓여있다. 충격으로 인해 배터리 내부의 음극과 양극을 분리하는 분리막이 손상되면 순식간에 온도가 800~1000℃ 이상 올라 배터리 내부가 팽창하면서 폭발하는 것이다.

배터리 관련 화재의 원인은 배터리 제조과정의 불량, 사용하는 과정에서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